

“천리순례, 역사속 한국불교 저력 계승 원력행”

“삼보사찰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앙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불교공동체의 수행과 실천, 그리고 원력과 신행이 하나로 모여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 사찰들입니다. 이러한 삼보사찰을 순례하는 것은 한국의 불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원력과 신행, 역사와 문화를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승하겠다는 원력의 표현입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7월14일 서울 동국대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순례의 의미와 일정 등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장 원명 스님, 지난해 열린 자비순례 7조 조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 박기련 자원단장이 함께했다.

호산 스님은 “2019년 상월선원 전막결사를 회향한 후 2020년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만행결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서 이를 대신해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의 염원을 담아 자비순례를 진행했다”며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돼 불자라면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할 삼보사찰 순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보신앙은 한국불교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신앙결사로, 천릿길에는 삼보사찰뿐 아니라 화엄십찰 화엄사, 구산선문 실상사, 호국사찰 표충사 등 여러 천년고찰과도 만나게 된다”며 “향후 곳곳에 전해지는 스토리를 엮고,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일본 시코쿠 헨로미치와 같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 자연을 경험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7월14일 서울 동국대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순례의 의미와 일정 등을 전했다.

7월14일,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의미·일정 발표 순례 지원할 봉사자 모집...산티아고 같은 국민 순례길 발전 기원

하고 그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국민 순례길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례단장 원명 스님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스님은 “지난해 자비순례길은 대부분 평지로 구성된 반면, 올해 천리순례길은 8개 재를 넘어야 하는 등 답사결과 거리가 줄었지만 힘은 3~4배 이상 들었다”며 “이번 순례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물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비순례에 이어 천리순례 동참을 신

청한 정충래 이사는 지난해 순례의 소회를 통해 이번 순례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정 이사는 “순례를 준비하며 지난해 21일간의 대장정을 되돌아보니 당시의 어려움과 고생보다는 보람과 성취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며 “지난해 참가자의 70%가 천리순례 동참을 신청한 것도 사부대중의 원력과 동참으로 함께 미래불교를 열어가자는 만행결사의 의미가 생생하게 각인됐기 때문일 것이다. 순례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련 자원단장은 “만행결사는 ‘미래

한국불교가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 앓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 소극적 불교에서 적극적 불교로 전환돼야 중흥을 이룰 수 있다’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찬란한 한국불교 역사를 몸으로 느끼면서 침체된 한국불교를 전환하는 원력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월선원 만행결사 추진위는 8월15일까지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력을 지원할 의료, 순례, 지원, 공양 등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도 천리순례 일제 전까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참가신청 010-5416-0616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사라진 옛 절터, 전국 5738곳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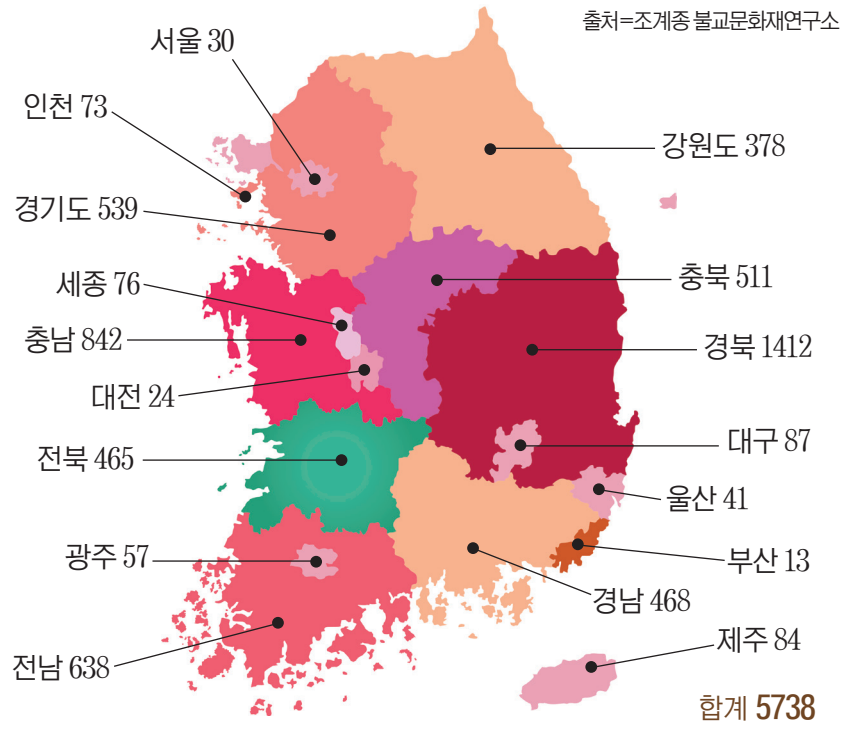
전국 폐사지 지역별 분포 현황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폐사지는 5738곳이다. 이 가운데 경북이 1412곳(24.6%)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842곳(14.7%), 전남이 683곳(11.1%)으로 뒤를 이었다. 또 경기 539곳(9.4%), 충북 511곳(8.9%), 경남 468곳(8.2%), 전북 465곳(8.1%), 강원 378곳(6.6%), 대구 87곳(1.5%), 제주 84곳(1.5%), 세종 76곳(1.3%), 인천 73곳(1.3%), 광주 57곳(1%), 울산 41곳(0.7%), 서울 30곳(0.5%), 대전 24곳(0.4%) 순이었다. 폐사지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으로 13곳(0.2%)이었다.

이 가운데 문화재청이 중요문화재로 지정한 사적(국가지정문화재)은 40곳으로 전국 절터의 0.7%에 불과했다. 사적은 경북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12곳은 경주에 위치했다. 이는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흥륜사지’ ‘감은사지’ ‘분황사지’ 등으로 신라왕경 사찰이 대거 포함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충남 역시 7곳 중 5곳이 부여에 위치해 있다. ‘정림사지’ ‘금강사지’ ‘군수리사지’ ‘왕흥사지’ 등 백제시대 절터가 다수 포함돼 있다. 경기 ‘양주 화암사지’와 3곳과 전북 ‘익산 미륵사지’와 3곳이 뒤를 이었으며, 충북이 ‘청주 흥덕사지’와 2곳, 강원이 ‘원주 법전사지’ 2곳, 전남이 ‘광양 옥룡사지’와 1곳이다. 이외에도 경남 ‘합천 영암사지’, 인천 ‘강화 선원사지’, 서울 ‘탐골공원이’ 현재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 전국 폐사지 지역별 분포 현황 ◆



조계종복지재단,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에 치료비

7월14일, 치료비 지원 선정심의 국내 18명 등 2억2000만원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국내외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총 2억2000만원으로 2001년 난치병 어린이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7월14일 전법회관 6층 입원실에서 ‘제21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지원 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진행하고 지원대상자 및 금액을 선정했다. 그

결과 영아척수성근위축, 모야모야병, 누낭증후군, 웨스트증후군, 상체불명의 무형질 변형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 18명에게 총 1억2400만원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라오스 어린이들의 치료지원에 66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또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3000만원을 조성했다.

2001년부터 매년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의 쾌유를 발원하고 치료기금을 모연해온 복지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는 온라인 모금캠페인을 진행했다. 3월22~7월12일 진행된 온라인 모금캠페인으로 지원 사

업 이래 가장 큰 금액인 총 2억2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연했다.

복지재단은 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표이사 보인, 사무처장 해공 스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사찰, 언론사, 자원봉사 영역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들은 대상 아동의 나이와 중증정도, 수술 등 긴급지원의 필요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순위를 결정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과 열악한 경제상황, 모연금의 증가 등을 고려해 단계별 지원 인원과 금액을 상향했다”며 “연회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지원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고자 사시적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선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의 안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치료를 위해 7월 중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 환자에게 치료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병원이용 및 일상생활 등에 있어 안정적인 치료가 더욱 어려워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 금액은 사업 시작 이래 가장 큰 규모인 만큼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희망이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육해공군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군불교 총본산이 될 **호국 홍제사**가 건립 됩니다.

01 군불교 총본산!

- 장병, 마음의 쉼터이자 귀의처 홍제사.
- 군승법사의 체계적인 교육 공간이자 군장병의 불교문화 체험공간입니다.

02 호국불교 근본도량!

- 민족과 함께하는 호국기원도량 홍제사.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까이 몸 던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도량입니다.

03 미래불교 산실!

-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포교도량 홍제사.
- 지역민의 신행터이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불자와 함께하는 수행도량입니다.

군 불교의 총본산! 호국불교의 근본도량이 될 “계룡대 호국 홍제사”가 원만 불사되어 미래불교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 바랍니다.

동참계좌: 국민은행 477401-01-237619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동참문의: 군종특별교구 중무실 02.797-7266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우438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길 46(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특별교구)
대표전화 02. 797-7266 팩스 02.796-0221 www.gunindra.com